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우아하게… 섹시하게…

스텝 UP 기분 UP 건강 UP

'비다살사' 동호회 회원들은 매주 월·금요일 함께 모여 살사를 추면서 친목을 다진다.

■ '비다 살사' 라틴 댄스 동호회

"영화 '댄서의 순정'의 문근영처럼 우아하게, 때로는 빗속에서 열정적인 춤을 추는 '스텝업 2'의 브리아나 에비건처럼 섹시하게."

댄서의 순정, 스텝업 같은 젊은 댄스영화 외에도 80년대의 섹시 스타 패트릭 스웨이지의 손길에 많은 소녀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더티댄싱', 하늘 찌르기 춤 광풍을 일으켰던 '토요일 밤의 열기' 등과 같이 '댄스'는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2000년 개봉 되었던 '살사'도 대표적인 댄스 영화로 꼽히는 작품이다. 제목처럼 이 영화에는 정열적인 '살사'가 화면 가득 숨막힐 듯 전개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흥겨운 라틴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때론 섹시하게 살사 춤을 추는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영화 '살사'의 주인공처럼 직접 무대에 서서 살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지내는 이들이 있다. '비다 살사' 라틴 댄스 동호회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강사 이승연(31)씨와 최호웅(34)동호회 회장이 살사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2월 처음 문을 연 동호회는 지금까지 16기 300여명의 회원을 배출한 광주지역 최대 살사 모임이다. 회원들은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살사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살사'는 스페인어의 소금이라는 'sal'과 소스라는 'salsa'에서 유래 됐다. 스페인어로 '음식의 양념 소스'라는 의미처럼 격렬하고 화끈한 것이 특징으로 삼바, 탱고, 맘보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라틴 춤이다. 경쾌하고 율동감이 넘치는 춤으로 남녀가 손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기본 스텝과 손을 엇갈려 잡은 후 회전을 하는 응용동작으로 구성된다.

광주지역 최대 살사 동호회

이들은 매주 월·금요일에 모여 함께 춤을 즐긴다. 월요일에는 신입회원들 위주로 강습이 이루어진다.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강습이 진행된다. 강습이 끝난 뒤에는 라틴 음악에 맞춰 함께 자유롭게 춤을 추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한 규정과 규칙은 없다. 음악 리듬에 따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 된다. 회원들 모두가 파트너가 되어 서로 호흡도 맞춰 볼 수 있다.

살사 강습은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강은정(여·29)·이승연(여·31)씨가 맡고 있다.

강은정 씨는 "혼자 하는 춤은 한계가 있는데 살사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파트너와 느낌을 주고 받으며 희열을 느낄 수 있다"며 "룰을 통한 건전한 스킨십으로 친밀감도 높아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꾸준히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없다. 살사를 배우는데 필요한 것은 슈즈화 정도. 편한 옷이 최고의 의상인 만큼 공연에 나서는 게 아니라면 특별한 의상도 필요 없다. 청바지에 면티 하나만 입더라도 본인만 편하다면 최고의 의상이 된다.

4년새 회원 300여 명 배출

금요일에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끼리 연합해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사 파티를 갖는다. 라틴음악에 빠져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한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 대부분은 20대 중반, 30대 초·중반으로 직장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춤이다 보니 어색해 하는 이들도 많지만, 음악에 맞춰 박자 패턴에 신경 쓰다 보면 금세 춤에 빠져 어색함을 잊게 된다. 또 상대의 리드에 따라 춤을 추는 느낌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춤을 추면서 인맥도 쌓을 수 있다.

회원들은 울산, 대구, 제주 등 다른 지역의 회원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전국의 살사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열적인 춤을 추는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장관을 연출한다. 느낌을 주고 받는 춤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 이 자리에서 만큼은 지역의 벽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댄서의 순정을 보고 춤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주부 김은아(35)씨는 "멋진 춤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직접 춤을 추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봄꽃 박람회에 참가, 회원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김씨는 또 "아직 익숙치 않은 춤이고 스킨십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이 살사를 야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만, 호흡을 맞추고 교감을 할 때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춤이다"고 밝혔다.

매주 월·금 모여 '살사 교감'

한정된 틀과 한계가 있는 다른 운동과 달리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게 살사의 매력이다.

호흡이 중요한 만큼 회원들간의 친밀감도 높고, 이국의 문화를 느끼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살사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이국의 낯선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다. 리듬을 귀가 아닌 온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 파트너와 눈을 마주치는 것과 스킨십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커플 댄스인 만큼 상대와 눈을 마주치며 호흡을 맞춰야 하고, 살사의 매력적인 동작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스킨십이 필수다. 영화 '살사'에서 주인공 레미에게 살사를 가르치는 쿠바인 친구는 어색해 하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한다. '파트너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녀는 떠나갈 것이다' 살사는 그만큼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한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함께 하는 최고의 살사가 만들어진다.

열성 회원 한정수(38)씨는 8개월 전 여동생의 권유로 살사에 입문했다. 한씨는 스킨 스쿠버, 스키, 골프 등 안해 본 레저 활동이 없을 만큼 다양한 활동을 했던 레저 맨이다.

"살사는 살사만의 룰이 정해져 있고 깔끔한 매너가 필수인 매력적인 춤입니다. 다른 레저활동에 비해 비용면에서 부담 없고,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취미활동 입니다."

/김여울기자 wool@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